

북한, 14년째 세계 최악 기독교 박해국 오명

2위 이라크·3위 에리트레아...기독교신앙 이유 희생자는 최소 7천여 명

북한이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을 가장 심하게 박해하는 국가로 또다시 지목됐다. 벌써 14년째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회는 지난 12일 2016년 세계박해순위(WWL, World Watch List)에서 "북한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전년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며 IS, 보코하람, 알카에다 등 이슬람 극단주의의 심화와 독재자의 횡포 등을 그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북한에서 모든 기독교인은 주된 계층인 핵심계층, 주변계층, 적대계층 중 적대계층에 포함된다. 종교 행위로 적발될 시 체포·감금·교문을 당하며, 노동개조원 혹은 교화소·관리소로 끌려가거나 공개처형을 당하기도 한다. 북한에서 인권 침해 정보를 보관하는 NKDB는 7,500여 명의 난민 인터뷰를 통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노출될 경우 대략 3분의 2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라고, 열 명 중 한 명 꼴로 '교화소로 끌려갈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보고했다.

오픈도어는 북한이 약 10만 명의

기독교인을 수용소나 감옥, 폐쇄된 마을에 가두었는데, 그 중 다수는 살해당하고, 일부는 노동수용소로 끌려갔으며, 4만여 명은 외딴곳으로 추방당했다고 파악한다. 또 추방당한 기독교인의 후손을 5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그 중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있다고 믿고 있다. 실제 북한 내 오픈도어와 직접 연관된 6만 3천여 명의 비밀신자가 있다고 소식지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세계박해순위의 최상위 10개국 중 북한(92점)에 이어 △2위 이라크(90점, 작년 3위) △3위 에리트레아(89점, 작년 9위) △4위 아프가니스탄(88점, 작년 5위) △5위 시리아(87점, 작년 4위) △6위 파키스탄(87점, 작년 8위) △7위 소말리아(87점, 작년 2위) △8위 수단(84점, 작년 6위) △9위 이란(83점, 작년 7위) △10위 리비아(79점, 작년 13위) 순이다. 작년 10위였던 나이지리아 대신 리비아 순위에 들었다.

오픈도어는 또 "올해 이슬람 극단주의와 종교적 국수주의로 인해 박해지수가 작년보다 5점 정도 올랐

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기독교인은 2014년보다 3천여 명이나 많은 7천여 명으로, 정확한 통계 조사가 어려운 북한, 시리아, 이라크 등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 파키스탄·에리트레아 등에서는 각각 소수 종교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신성모독법과 1인 독재체제 속 핍박으로 기독교 신앙 생활을 위협받고, 많은 성도가 난민이 되는 되는 실정이다.

국제오픈도어가 1991년부터 매년 발표해 온 기독교 박해지수는 기독교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자유의 정도를 측정하고, 개인·가족·지역·국가·교회생활 등 5개 목록과 폭력 정도를 수치로 나타냈다.

북침주의 초교파 단체인 국제오픈도어는 1955년 브라더 앤드류가 폴란드에서 고난받는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 가족 가방에 성경책을 넣어 철의 장막을 넘으면서 시작했다. 지난 60여 년간 북침의 제한지역에서 신앙 때문에 억압과 박해를 받는 교회를 섬겨 왔다. [자료출처: 선교신문]

北 '종신형' 임현수 목사, 성경외 부족한 것 없다?

11일 CNN방송 인터뷰서 밝혀...하루 8시간씩 땅 파고 있어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

이 나가자 인터뷰는 시작됐다. 임 목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성경'이라고 답했다. 그는 "필요한 것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성경 외에는 부족한 게 별로 없는데 주된 성경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의 신앙을 지탱하는 것이 믿음임을 보증하는 대목이다. 그는 또 "가족 편지도 정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11일 미국 CNN방송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된 가운데, 여전히 굳건한 임 목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현수 목사는 북한 평양의 한 회의실에서 열린 CNN방송과의 인터뷰를 위해 입장하면서 두 명의 북한 교관이 임 목사의 양팔을 잡고 들어 왔다. 그리고 임 목사를 향해 "앉아"라고 지시하자 임 목사는 앉았고, 다시 그가 "일어서!"라고 명령하자 그대로 일어섰다. 다시 첫 관수가 "앉아"라는 명령에 임 목사는 앉았고, 이후 관수들

이 나가자 인터뷰는 시작됐다. 임 목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성경'이라고 답했다. 그는 "필요한 것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성경 외에는 부족한 게 별로 없는데 주된 성경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의 신앙을 지탱하는 것이 믿음임을 보증하는 대목이다. 그는 또 "가족 편지도 정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죄수들은 보지 못한 채 혼자 노동하고 있는데, 원래 노동자가 아니라서 처음에는 일이 힘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 목사는 또 "북한의 최고 정치 지도자들을 욕한 게 가장 큰 죄목이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인터뷰 직후 임현수 목사는 2명의 관수들에게 함께 다시 사무실을 나갔다.

“한국선교사 171개국에 27,205명 파송”

KWMA, 2015년 12월 말 한국선교사 파송 현황 통계...전년대비 528명 증가

2015년은 'Target 2030'의 2차 5개년도가 마감되는 해였다. 2006년에 비전선포가 되고 10년이 지났다. 2015년 11월에 열렸던 한국선교지도자포럼에서는 1차 5개년, 2차 5개년의 10년을 정리하고 3차 5개년의 활동 사항들의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진행되었다.

2006년에서 2015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한국 선교사는 12,309명(2006년 14,896명, 2015년 27,205명)이 증가하여 매년 평균 약 1,200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정리된다. 꾸준한 '양적 성장'과 함께 선교 이론·연구, 선교동원·홍보, 선교 훈련,

선교 행정, 선교 전략, 선교 지원의 전문적 영역의 발전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도 파송 선교사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한국교회가 느끼는 위기의식 속에서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적 노력이 있었음을 말해 주는 고무적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매년 늘어나는 파송 선교사 수가 네 자리(천 명 단위)에서 세 자리(백 명 단위)로 나타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역시 세 자릿수 증가로 나타났고, 171개 국가에서 사역하는 27,205명으로 집계되었다.

'Target 2030' 2차년도 마무리되고 '전략투구기'로 집약되는 3차 5개년(2016년에서 2020년까지)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528명 증가는, 앞으로의 한국 선교계에 과제와 도전을 주는 현상으로 보인다. 한국 파송 선교사의 증가 속도가 점차 떨어지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이 때야말로 한국 선교가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균형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전환의 시점이다.

이미 한국 선교계는 2000년부터 NCOWE를 통해 질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닦아왔다. 전략적인 선교사 배치(3차), 방향성 있는 한국 선교



2015 KWMA 회원 대표자 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의 미래 'Target 2030' 비전 제시(4차), 성장하는 비서구권 사역자들과의 협력을 위한 기초로서 한국 선교 모델 찾기(5차), 그리고 자신학과 자선교학에 대한 추구(6차) 등은, 한국 선교계가 균형 잡힌 선교를 위한 노력에 대한 반증이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전방개척선

교가 계속 강조되고, 선교지에 대한 전략적 구분(18개 권역)과 각 권역별 전략적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지난 10년간, 특별히 2차 5개년도 기간(2010년에서 2015년) 동안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 통계 수치는 전략적 선교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3-7-21 재능캠프 재능 개발·토크스, 얼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USA Tel: (951) 383-5583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Ivydream.com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www.e-nca.org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2,048점 기록(전미주 평균 1,500점)
- 지난 15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학생과 교사 비율 평균 10:1로 소수정예의 질 높은 교육 환경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운영(월 \$75~\$150 정도의 경제적인 비용)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영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입학 문의 (213) 400-3588, (213) 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의 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남가주한인목사회·미주한인재단...미주 한인의 날 기념예배 드려

남가주한인목사회와 미주한인재단이 2016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을 1월 10일 한미장로교회에서 거행했다. 미주 한인의 날은 2004년 1월 12일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바 있으며 2005년에는 미국연방의회 상하원에서 제정이 결의된 기념일이다.

이날 감사예배에서 엄규서 목사회장은 “미주 한인의 날을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감사한다. 1620년 102명 청교도가 미국을 건설한 것처럼 우리 한인도 1903년 102명 하와이 사탕수수농장 이민자가 미국에 왔다. 이런 신앙 선조들의 뒤를 이어 힘을 다해 더욱 고양된 이민사회를 이루자”고 전했다.

미주한인재단 박상원 명예회장은 “우리 미주 한인인 미국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우리 한민족은 이 시대의 주인 된 민족으로 나서야 한다. 오늘 감사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과 은혜가 충만한 약속의 시간”이라 강조했다.

이날을 기념하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축사를 보냈다. 그는 “구성원의 다양성은 미국의 발전과 경제적 성공에 필수적이었고 미주 한인인 이 성장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1세기 이상 우리나라를 함께 건설하고 지키고 튼튼히 해 왔다. 우리는 미국과 한국의 끈끈한 동맹과 우정을 확인한다. 두 나라 국민들은 상호 헌신하고 희생하며, 지역적으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국제적



남가주목사회와 미주한인재단이 공동으로 미주 한인 이민 113주년 기념 및 제13회 미주 한인의 날 감사예배를 드렸다.

으로 민주적 가치를 촉진하며 60년간 함께 걸어왔다. 미주 한인인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풍요롭게 해 온 것을 기념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을 기원한다”고 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도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해 주신 동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화합을 통해 더욱 존경받는 커뮤니티로 발전하기 바란다”며 “여러분이 미국 주류사회

에 더욱 활발하게 진출하고 한미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김준형 기자



신년하례식을 마친 후, 목회자와 가족들이 기념촬영했다.

“미주예성 서부지방회 신년하례식”

2016년 신년에는 함지박(함께 지혜롭고 박력있게) 영성 사역을 하자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서부지방회(회장 강양규 목사)가 10일 주일 오후 5시에 남가주빛내리교회에서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신년 하례식을 했다.

제1부는 신년감사예배로 박재웅 목사의 찬양 인도에 이어서 지방회장인 강양규 목사의 사회와 장인관 목사(선교사의친구들 대표)의 기도,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내리교

회)의 설교, 가족별 신년인사 및 덕담, 그리고 성기호 목사(전 성결대학교 총장)의 신년 덕담 및 균형 소개와 최한오 목사(중경 총회장)의 축도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신년메시지를 전한 박용덕 목사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본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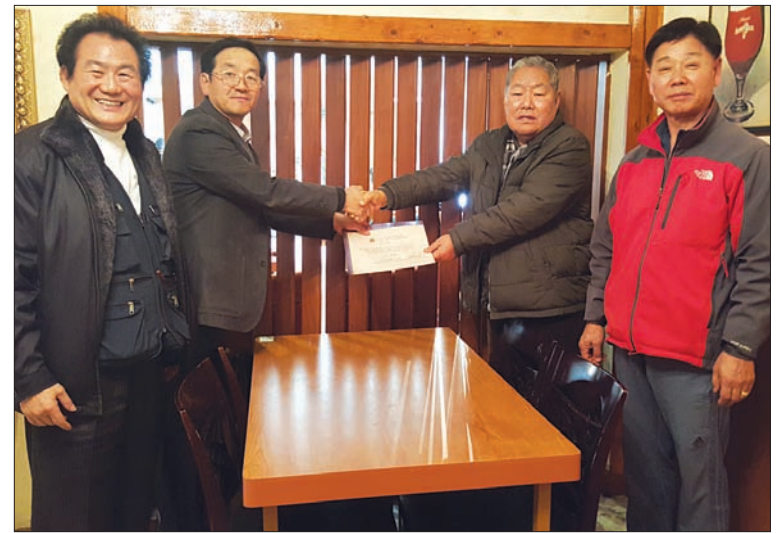
박 목사는 설교를 통해 전한 말씀에서 “2016년 신년에는 우리 모두가 함지박 영성을 갖자”라고 말했다. 함지박은 함께 사역하고, 지혜롭게 사역하고, 박력있는 사역하자란 뜻이다.

제2부 만찬에 이어서 제3부 순서는 레크리에이션과 경품 추첨으로 진행됐다.

김준형 기자



남진석 글로벌선진학교 설립 이사장 초청 OC기독교계 지도자들을 위한 신년축하 만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엘에이 군사랑선교회(CLMM 회장 김희창목사)는 지난 8일 월서의 한 식당에서 지난 2년동안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며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자료수집 등으로 섬겨주 군사랑선교회를 발전시킨 부회장 조순재 집사에게 공로장을 수여하고 축하했다. 군사랑선교회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11시에 윌드미션대학교 6층에서 정기 예배 모임을 갖고 국군장병과 미국장병, 그리고 조국을 위해 기도한다. 문의: 213-453-4572

OC기독교계 지도자 초청 글로벌선진학교 설명회

글로벌선진학교(Global Vision Christian School, 이하 GVCS) 설립 이사장 남진석 목사 초청 OC기독교계 지도자 초청 신년축하만찬회가 지난 7일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에 위치한 Coyote Country Clubhouse에서 열렸다.

GVCS는 2003년 강원도 홍천군의 한 수련원에서 시작하여 2004년 충북 음성 캠퍼스와, 2011년 경북 문경 캠퍼스, 그리고 2015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캠퍼스를 개교하여 현재 1,000여 명 이상의 재학생이 확보한 기독교적 가치관 위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미 졸업한 1,000여 명의 동문들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명문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다.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 윤우경 회장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민승기 목사(OC교회 회장) 설교, 이길소 선교사 기도, 객재필 목사(OC목사회) 축도, 박승환 목사(OC원로목사회 회장) 만찬기도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남 이사장은 기독교적 가치관이 위협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GVCS의 미국 진출을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가 성경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재들로 양성될 수 있는 기회이며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초청된 기독교 단체들은 오렌지카운티 지역 기독교교회협의회, 한인목사회, 장로연합회, 기독교평신도연합회, 원로목사회 등 5개 단체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미주한인 신학교 최초로 인가된 D.Miss.(선교학 박사)과정!!

학위과정

박사	선교학 박사 (D.Miss) 42학점
석사	목회학 석사 (M.Div) 105학점
	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 69학점
	선교학 석사 (MA ICS) 48학점
	100% 온라인가능
학사	신학사 (BA)
	100%온라인가능

- 우수한 교수진
-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 저렴한 교육비
- HD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강의
- 전과정 유학생 SEVIS I-20 발급 (본교 및 LA)
- 미 연방정부 학비보조 지원 -그랜트 및 론
- 미 국방부 학비 지원(TA)
- GMU 학교 장학금 수여

엘에이 지역 입학 설명회(Open House)
 날짜 : 1월 23일 (토) 오후 3시
 장소 : LA 한국교육원 강의실 (윌셔블러버드와 윌서 플레이스)
 행사내용 : 학교 소개, 학위 및 전공과정 소개, 정부학자금 및 장학금 소개, 유학생비자 소개, LA 연장 강의 소개, 참여자는 입학금 면제, 관심있는 모든 분 환영

2016년 봄학기 원서접수 마감 : 2016년 1월 31일

온라인 입학 원서 접수 www.gm.edu
 English Track도 있음 (전과정을 영어로 강의)
 LA Extension Class도 가능 (49% 까지 강의 수강)

■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 이메일: admissions@gm.edu ■ 웹사이트 : www.gm.edu

50대 초반의 문일명 목사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를 따라 이민 와 미국에서 교육받았으나 현재는 1세 목회를 하고 있는 독특한 위치의 목회자다. 그는 이민교회에서 성장해 목회자가 되기까지 작은교회는 물론 중대형교회들을 두루 경험했다. 사역 측면에서도 1세와 2세 목

회를 섭렵했다. 현재는 EM(영어권 대학생 및 청년) 포함 100여 명에 가까운 영혼들의 보금자리인 밸리 소재 한우리장로교회(19000 Satvoy St., Reseda)를 13년째 담임하고 있다. 다음은 "때로는 굴곡이 있지만 여전히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는 문 목사와 나눈 일문일답.

1·2세 연합해야 주님나라 위한 시너지 업

기독일보 초대석 한우리장로교회 문일명 목사

-먼저 신앙 및 사역 경력을 소개해 달라.
"지난 1976년 미국에서 롱비치 한인 커뮤니티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모교회라 할 수 있는 남가주동신교회에서 보냈다. 한빛장로교회 교육전도사를 거쳐 1993년 목사안수를 받았다. 그후 11년간 나성영락교회에서 박희민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며 목회를 두루 배웠다. 소년부, 영어대학부, 교육부 총괄, 교구 사역 등으로 1세에서 2세에 이르는 여러 분야를 담당했다. 1.5세치고는 색다른 경험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후 글렌데일 한인장로교회를 거쳐 한우리장로교회에 청빙 받았다. UCI에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뒤 풀러신학대학원에서 M.Div. 학위를 받고 같은 학교 박사과정을 수학했다."

-많은 만남의 복을 누린 것 같은데.
"그렇다. 40여 년간 이민목회 현장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을 여러 분 만났던 것을 주님께 늘 감사한다. 특별히 소천하신 남가주동신교회 이기덕 목사님, 나성영락교회를 은퇴하신 박희민 목사님 등으로부터 목회가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었다."

-본인의 목회 비전은 무엇인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영성이다. 그것이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살아 있는 영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영성은 오직 예배와 말씀, 기도에서만 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매 예배 때마다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야 한다. 또 공동체기도, 개인기도, 중보기도의 기반을 교인들의 삶 안에 닦아주어야 한다."

-이민교회 안에 1세와 2세간의 간극이 크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1세와 2세가 연합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거쳐 청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어른예배로 연결돼 한 몸의 지체로서 함께 교제하고 봉사해야 하는데 1세와 2세들이 언어,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한적인 행사만 같이 하면서 남남같이 지내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초등시절 이민과 1세교회 담임 크고 작은 사이즈 이민교회에서 한국어 영어 사역 골고루 경험 한인 아픔 치유하는 목회 중요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1세와 2세 사역자들이 연합하는 일이 필수다. 저는 1, 2달리를 벌기 위해 밤새 도넛을 만드시던 부모님을 옆에서 도우면서 자랐기에 1세들의 아픔을 이해하며 동시에 초등학교 6학년 시절부터 2세들과 더불어 미국 교육을 받았기에 그들의 고충 역시 잘 안다. 앞으로 한우리장로교회를 1세와 2세를 하나로 묶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파워풀한 공동체로 성장시키고 싶다."

-이민목회에 있어 중요한 것이 있다면.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제게 '이민목회는 치유목회가 되어야 해!'라고 가르쳐 주셨다.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1세들은 일터에서 사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참으로 답답하고 고독한 생활을 한다. 그들에게 교회 공동체는 나의 말을 하고 마음을 토로

할 수 있는 영적, 심적, 정신적 위안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똑같은 이유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기도 한다. 은혜체험 없이 내는 우리의 소리는 교회를 어렵게 만들 소지가 늘 있기 때문이다. 이민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건강한 성장들도 있었지만 분열도 많았다. 성장기에 교회가 돌로 쪼개지는 것을 경험하며 아픈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다. 이런 까닭에 이민교회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이민목회의 설교는 많은 부분 치유에 집중해야 한다. 말씀의 은혜로 치유받은 교인이 건강한 성도로 자라게 된다."

-교회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선교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창조주는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피조물처럼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자체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선교의 액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젊은 시절 여러 나라에서 단기선교와 구호사역을 경험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지난 10년 동안 1, 2세 연합 단기선교팀을 이끌고 몽골, 중국, 멕시코, 콜롬비아, 베트남, 태국, 엘살바도르, 아메리칸인디언 보호구역 등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체험을 통해 선교에 눈 뜬 교인은 결코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없게 된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외 없이 해외로 직접 나가거나 후방에서 선교지원을 하게 되는 게 간절한 소망이다."

-작은교회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작은교회는 지체들간에 친밀한 인간관계



한우리장로교회 담임 문일명 목사.

를 맺을 수 있고 담임목사로부터 직접 신앙지도를 받을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 하지만 오래 목회 하다보면 누구나 부침을 겪게 된다. 작은교회의 신선한 장점을 잃지 않고 사역하는 게 중요하다. 그럴려면 목회자의 자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목회자가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교인들이 변화하지 않는다. 교회 부흥이 어려운 지역으로 평가받는 밸리에서는 더 더욱 그렇다."

-가족을 소개해 달라.
"아내 문은미 사모와 두 아들을 두고 있다. 동생 문영명 목사는 국제 빈민아동 후원선교단체인 컴패션의 북중남미 한인교회 대표로서 사역하고 있다. 처가 쪽으로는 한국외향선교회 책임자로 40여년간 세계선교에 힘써 수만 명의 결신자를 얻고 은퇴하신 장인 최기만 목사, 타코마중앙장로교회를 담임하는 윗동서 이형석 목사, 몽골국제대학 교수로서 선교사역중인 처남 최대니 목사 등이 있다."
*문의: 818-697-5266

김장섭 전문위원



밸리 리시대에 있는 한우리장로교회 교인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마력 북경중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외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Earn your Associate degree in just ... ONE YEAR!

LAORT COLLEGE
WE PUT EDUCATION TO WORK

- Accounting
- Business Management
- Administrative Assistant
- Phlebotomy
- Medical & Clinical Assistant
- Medical Office Management
- Pharmacy Technology Administration
- Digital Media
- Computer Aided Drafting & Design (CADD)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한국어 상담 그레이스(Grace)
직 통 : T(213)703-6863
Office : T(323)966-5444

WE OFFER:

- Financial Aid and Scholarships are available (for those who qualify)
- Job and Career Placement Assistance
- Day and Evening Classes
- Transportation Assistance
- Student Visa Assistance
- Accredited by ACCET

LAORT.EDU
800 NON-PROFIT SCHOOLS WORLDWIDE
1.800.998.2678

MID-WILSHIRE CAMPUS
6435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48

SAN FERNANDO VALLEY CAMPUS
14519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목회자들이 캘리포니아 주 상하원의원들과 함께 아침기도회를 드렸다.

“한인 목회자들 가주 주청사에서 기도회”

영 김 등 의원들 기도회 후...미주 한인 날 결의안 하원 만장일치 통과

지난 11일 캘리포니아 주 영 김 하원의원(공화, 65지구)과 스캇 윌크 하원의원(공화, 38지구)이 새크라멘토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청사에서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한인 목회자와 한인사회 리더들을 초청한 가운데 아침기도회를 개최했다. 이 기도회에는 김 의원, 윌크 의원과 함께 동료 상하원 의원 14명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하원의원 당선 직후인 지난 해에도 연초에 한인 목회자들을 주청사로 초청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기도하며 의정 활동을 시작한다. 올해 김 의원은 윌크 의원과 함께

지난 4일 미주 한인 날 기념 결의안 ACR110을 의회에 상정했고 11일 이 아침기도회 직후 열린 의회는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2016년 1월 13일 미주 한인 날을 기념하며 캘리포니아 한인들의 역사와 공헌, 희생을 기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표결에서 김 의원은 “미주 한인으로서 나는 나의 유산과 가족

에 대한 강한 가치, 신앙, 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수고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2년 연속으로 미주 한인 날을 기념하고 커뮤니티에 기여를 확인하는 이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공동발의자인 윌크 의원도 “캘리포니아의 다양성이야말로 캘리포니아를 위대하게 해 왔다. 우리가 일상에서 미주 한인들의 중요한 역할을 기념하고 강조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했다.

김준형 기자



지난해 제1회 주님세운교회에서 열렸던 드림 오케스트라 주최 자선공연 모습.

“난민돕기 자선 콘서트”

1월 16일(토) 오후 7시 산타모니카 Barnum Hall에서

드림 오케스트라(지휘 다니엘 석 집사, 주님세운교회) 주최 난민돕기 자선 콘서트가 오는 16일(토) 오후 7시 산타모니카에 있는 Barnum Hall에서 열린다.

드림 오케스트라는 180여 명의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카운티 지역 프로 뮤지션과 음악 전공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공연에 무료로 참가하며 이번 공연에서는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 9번을 연주한다.

이 자선 공연은 연주자 모두가 무료로 봉사할 뿐만 아니라 극장 대여

비용 또한 스폰서를 통해 지원받기 때문에 관람 티켓 판매 대금과 도네이션 전액은 자선사역에 사용된다.

작년 1월에 토렌스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에서 한 첫 번째 자선 공연 때는 1만 7천불이라는 귀한 금액이 모금되어 시리아 난민들에게 전달됐다.

이번 자선 공연의 티켓은 1매 5불이다.

*문의: 1800-838-3006

323-428-5668(한국어)
*웹사이트: Dreamorchestra.org
이영인 기자

샘물교회 창립 기념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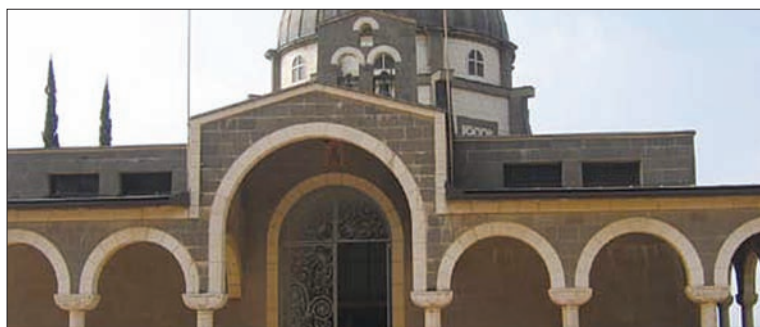
샘물교회(담임 정기정 목사)가 창립 기념예배를 드리고 지역복음화에 앞장선다.

- *일시: 1월 17일 오후 5시
- *장소: 샘물교회
- *주소: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 *문의: 714-749-7770

샘물교회 창립기념 중보기도 세미나

샘물교회(담임 정기정 목사)는 교회 창립 기념으로 YWAM 중보기도학교 설립자이며 열방대학 교수인 폴 호킨스 박사(Dr. Paul Hawins)를 초청 중보기도 세미나를 연다.

- *일시: 1월 22일(금) 오후 8시-23일(토) 오후 9시까지
- *장소: 샘물교회
- *주소: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 *참가비: 50불(교재 및 식사비 포함)
- *문의: 818-523-4766 (김정애 목사)



◆하나투어와 함께 하는 은혜와 감동의 이스라엘 성지순례 ㉞

<갈릴리 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지방. 티베리아스라고도 하며, 성경에 자주 등장한다.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처형되고 부활했지만 주요 활동지역은 이곳 갈릴리였다. 제자들도 배반자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 갈릴리 출신. 예수가 처음 기적을 보인 가나, 사람들에게 설교와 치료를 해준 곳인 가버나움도 유명하다. 중심지는 나사렛이며 북쪽은 레바논 산 남쪽은 에즈렐 평야, 동쪽은 갈릴리 호수, 서쪽은 약고 평야와 접한다. 이스라엘에서 자연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도 손꼽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일으킨 가버나움과 갈릴리 호수 등이 있다.

갈릴리 남부

1. 가버나움

여러 곳에서 이 도시를 ‘그의 고향(his own city)’ 혹은 ‘그의 도시’라 부르고 있다. (마 9:1, 막 2:1) 갈릴리의 바닷가 마을로 예수께서 설교하던 회당(마 8:5, 막 1:23, 눅 4:23, 7:2)과 베드로의 생가(마 8:14, 막 1:29)가 남아 있다. 이곳에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고 혈루증 여인을 낫게 했다.

2. 베드로 수위권 교회

부활 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물으신 곳. 4세기 후반에 세워진 비잔틴 교회의 벽면을 보존하면서 1933년에 해변가에 다시 세워진 이 교회 안에는 주께서 베드로와 함께 잡은 고기를 구워 잡수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던 바위(Mensa Christi)가 보존되어 있다.

3. 오병이어 기적 교회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신 기적의 장소. 네 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 중 하나인 오병이어 사건(마 14:13~21, 막 6:30~44, 눅 9:10~17, 요 6:1~14)의 현장에

세워진 기념 교회로 히브리어로는 ‘Ein Sheva(일곱 개의 샘)’이라 한다.

4. 팔복교회(산상수훈)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마 5:1)라고 전한다. 바로 이 산을 일컬어 팔복 산이라 하고, 1938년 이탈리아 건축가 바루치(Barluzzi)의 설계로 이곳에 팔각형의 기념 교회가 세워졌다.

<계속>

문의: 엘에이 본사(213)736-1212
김상준 매니저(213)201-5369
무료전화: 1-877-464-6121
FAX: (213)736-1221, (646)349-3971
웹사이트: www.usahanatour.com
주소: 3053 WEST OLYMPIC BLVD #101
Los Angeles, CA 90006



매니저 김상준.

기독교일보

편집국: 박희민, 장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이인규
지사명: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213) 739-0403 / E-mail: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주소: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축 경영대학 및 대학원 (MBA) 과정 허가 축

혁신적으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미성 대학교는 2016년 다음 11과정의 주정부, 연방정부, SEVIS I-20 를 마치고, 최고의 교수와 스태프 시설로 2016년 봄학기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특히 유학생들을 위하여 다음의 특전을 준비했습니다:

1. 미 연방정부와 CHEA인증을 받은 정식 학위를 수여합니다.
2. 신규 경영학 학사, 경영학 석사 (MBA) 수여합니다.
3. 유학생에게 USCIS 허가 된 자체 I-20 신속하게 발행합니다.
4. 신규 및 전학생 F-1/I-20 Transfer 환영합니다.
5. 신학, 기독교학, 목회, 상담학, 경영학, 간호학, ESL, DMin 학사부터 박사까지 다양한 학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6. 유학생들에게는 CPT 와 OPT 를 허가해 드립니다.
7. 저렴한 학비, 월 payment 로 학과 수업에 부담이 적습니다.
8. 컴퓨터, 모바일, 인터넷, 온라인 등 세계 어디서나 수업 가능합니다.
9. 현대화된 시설, 넓은 파킹랏, 친절한 서비스, 세계적인 수준의 교수, 흥미 진진한 수업 진행중입니다.
10. 수시 입학 가능합니다.



미성대학교의 신학부의 특징

- 졸업후 목회자, 선교사, 전문상담사 등으로 사역
- 한국과 미국 어디서든 가능한 온라인 강의
- 국내외 우수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뛰어난 교수진
- 이중언어, 영어 강의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ASK: Jin Lee ,입학상담자 (323-643-0301)

EMAIL: admission@aeu.edu
www.aeu.edu

구령위한 생명 사역의 섭리

사도행전 9:32-43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1. 예수님이 보이신 생명 사역의 섭리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이것을 왜 권능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권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러한 권능을 성령으로 무장시키셔서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미치광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통해서 그 권능을 체험하고 지켜 본 사람들은 이 권능을 주신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사역의 목적입니다. 이런 이적과 기사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의 방법으로 생명 사역의 섭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에니아를 붙잡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에니아를 살려서 쓰시겠다는 응답이 왔습니다. 베드로가 기도 끝나기 바쁘게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34절)하니, 에니아가 벌떡 일어나서 누웠던 자리를 정돈하는 것입니다. 그 후 35절에 보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다는 것입니다. 소문만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 사역의 섭리입니다. 베드로와 에니아를 목양지간으로 묶어주셔서, 목자를 통하여 병 고침을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체험하는 은혜를 뛰어넘어,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표적이 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의 중풍병을 베드로가 고쳤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룻다와 읍바의 거리가 약 14km정도, 삼십 오리쯤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제자들은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읍바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베드로를 데리고 다락에 올라갔습니다. 다비다와 함께했던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다비다가 저희와 함께 살아 있을 때에 만드느 속옷과 겹옷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다비다는 전도 사역에 엄청난 성과를 올려드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되살려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계속 생명 사역을 하게 하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구원을 얻겠는가하며 아쉬움을 호소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하고 방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비다를 되살려 생명 사역을 위해 계속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은 채로 시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킨 다음, 아래 층에 있던 성도들과 과부들을 다 올라오라하여 살아난 다비다

를 보여주었습니다. 분명 자기네들이 시체를 씻어서 이층 방에 눕혔는데, 베드로가 기도하여 되살아난 다비다를 부둥켜 안으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 소문이 읍바 전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온 읍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많이 주를 믿었습니다. 다비다가 죽었다가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 되살아나게 된 이적이 기폭제가 되어 읍바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 사역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비다를 통해서 생명 사역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다비다를 되살리심으로 그가 주께서 살리시는 날 동안 계속 웃을지어 전도하는 일로 구령 성과, 즉 생명 사역의 더 많은 성과로 쓰임 받게 하셨다는 것도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다비다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은 자기 생애와 가진 모든 것을 생명 사역에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인생이니까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여인처럼 생명 사역에 헌신, 봉사, 충성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를 되살려 쓰시는 이유가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목숨이 먼저입니까? 생명 사역이 먼저입니까? 그 사람에게 생명 사역의 성과가 분명히 보여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보장하시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2. 이적을 통한 생명 사역의 섭리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에게 심방을 갔습니다. 그때는 지방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어느 집에 그 지역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에니아(찬양이라는 뜻)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에니아가 중풍병으로 사지를 못 쓰게 되어 자리에 누워 앓은 지 팔년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벌써 8년이나 지났으니 이제 사람구실하기 힘들 것이라고 모두 생각했을 그 때에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 에니아를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성경의 증거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떼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중재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양떼 그 사이에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 양떼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목자와 양떼의 관계를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3. 다비다를 통한 생명 사역의 섭리

36절부터 보면 읍바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그곳은 지금 텔아비브라고 불리며,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읍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유대인의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라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어, 영혼이 하늘나라 갈 신령한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애와 자기가 가진 재산을 아낌없이 복음의 제물로 투자했습니다. 웃음을 많이 사서 과부들에게 일거리를 주어 재봉하여 만든 옷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전도하였습니다. 그 영혼들이 생명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구제와 선행이 주변에 두루 퍼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누워눕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을 것이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어 죽은 모습을 보면서 시험이 들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때 룻다로부터 에니아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하나님의 성품과 중보기도

중보기도 세미나 “하나님의 성품과 중보기도”



주강사: Dr. Paul Hawkins
 ▶ YWAM 예수 전도단 중보기도학교 설립자
 ▶ Kona 열방대학 교수



강사: 정경정 목사
 ▶ 샘물교회 담임
 ▶ FIRE CRUSADE 설립/지도목사



강사: 강영수 목사
 ▶ Los Angeles Bible Conference 대표강사
 ▶ Church Resource Ministry, Korea 청년 디렉터
 ▶ YWAM DTS 졸업



강사: 김정애 목사
 ▶ 중보기도 Light House 대표
 ▶ 중보기도 Networking 사역
 ▶ 샘물교회 중보기도/여성 사역 담당

▶ 일시: Jan.22 (Fri) 8 pm ~ 23 (Sat) 9 pm ◀◀

▶ 장소: 샘물교회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 참가비: \$50 ▶ 문의: 김정애 목사 (818) 523-4766

기독교학교 교장 청빙

2016년도 가을 학기
크리스찬 학교 개장을
준비 할 교장선생님을 초빙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연단 시킬 교육의 사명을
가지신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자 격 : Home School, 교장, 교사등의 경험이 있는 사명을 가지신 분
- 제출 서류 : 이력서, 신앙고백서, 자기소개서
- 제출 처 : hlee@gcjc.org
- 문의 전화 : T. (213)749-4500
- 담당 자 : 이미정 총무 위원

G 주님의영광교회 학교설립 위원회

•다문화선교

다문화 사회변화와 교회

현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들에게 다문화 사회와 민족의 이해는 시급한 과제이며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민족과 문화의 변화를 경험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를 가진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즉, 우리 사회는 지금 다문화 이주민들의 유입으로 인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어울리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교회는 이러한 현상에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다문화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고향과 본국을 떠나 낯선 곳에 정착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변화될 뿐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이렇듯 우리는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사회와 국가를 떠나 낯선 환경에서 살아가는 의미에서 다문화 민족을 디아스포라(diaspora)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디아스포라는 '흩뿌리거나 퍼뜨리는 것'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이다.

디아스포라 현상은 집단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부와 자본을 얻고자 하는 "경제적 디아스포라", 둘째 인권과 자유를 위해 난민이나 망명으로 이주하는 "정치적 디아스포라", 그리고 세번째 결혼의 방식으로 이주하는 "사회적 디아스포라"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의 "디아스포라 과정"은 기존 사회의 정체성 형성에 매우 급격한 변화를 제공하게 되었고, 또한 지금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문화와 사회적 변화 속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에 있어 "디아스포라 과정"은 교회의 목회와 선교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즉, 디아스포라 현상은 교회가 지금까지의 목회와 선교의 복음화 사역을 위한 관심과 대상을 바꿔야 하는 중요한 변화를 시도하게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교회들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고 후원하는 역할이 교회의 주된 역할이라 생각해 왔었다. 그러나 이젠 다문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과 변화로 교회들이 전도와 선교의 복잡적 목회방식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대부분 교회의 선교패러다임은 교회가 어느 나라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 매우 달라 질 수 있다. 크게는 두 지역으로 구분된다. 북음화된 지



송재호 목사
하늘샘교회

역에 위치한 교회와 선교지에 위치한 교회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전통적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지역이고, 후자는 전통적으로 선교사를 받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 두 지역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면 다음의 4가지 지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된다. F(Frontier Area/전방개척지역), R(Revival Area/재복음화지역), O(OPEN Area/개방지역), M(Multi-Ethnics/다민족 지역).

F 지역은 북음 전파가 요청되거나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즉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대부분의 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O 지역은 일반적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지역을 말한다. 즉 미국,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등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가 이에 해당된다. R 지역은 대부분의 서유럽 지역과 같이 과거 기독교 국가로 선교에 큰 역할을 했으나 오늘날 후기 기독교사회로 들어가면서 교회가 줄어들고 오히려 재복음화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M 지역은 다민족 사회 지역을 말한다. M 지역은 최근에 등장하는 지역이나 국가로 세계화와 이민으로 인해 한 지역 안에 여러 나라 민족들이 함께 사는 지역을 말한다.

우리가 사는 미국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O 지역이었지만 현재는 OM 지역으로 급속히 변해가고 있다. 이 말은 급속한 세계화로 인해서 오늘날 미국 사회는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로 발전했고 그 결과 OMF의 성격이 나타나는 지역이 되어 버렸다. 즉 북음이 개방된 선교사 파송국가(O)지만 동시에 다민족사회(M)로 바뀌면서 이제까지 가장 북음을 전하기 쉽지 않았던 종족들이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즉 미국이 미전도종족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가장 최전방지역(F)이 되어버린 것이다.

최근 미국 교회들은 기존의 선교 방식과 다른 문턱선교(Mission on

our door steps)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고 한다. 문턱선교(Mission on our door steps)란 의미는 단지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선교지라는 인식을 하고 그 사회 안에 있는 다민족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한 선교적 과제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또한, 영국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O 지역이라고 구분되었고 그래서 아직 일부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 영국과 유럽은 재복음화와 필요한 R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다. 다시말해서 영국과 같은 지역은 ORM(개방/재복음화/다민족)의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지역으로 변화된 것이다.

한편, 전통적인 선교지로서 F 지역이었던 인도네시아와 중국과 같은 나라는 최근 교회가 성장하면서 O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이 현지 교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즉, 그 나라 안에 자생적 교회가 수립되면서 이제는 자민족 안에 스스로 북음을 전할 수 있는 자생적 교회가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오늘날 디아스포라 현상 속에서 교회는 바뀌어진 환경과 함께 교회적 상황에 적합한 다면적이고 전방위적(multi-dimensions, multi-directions)인 목회와 선교의 접근방식을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미국 뿐 아니라 한국과 전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들이 고민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들은 자신들이 어떤 지역에 위치한 교회이고 어떤 형식의 선교를 해야 하는가를 고려하는데 있어서 전통적이고 단선적인 형식을 취하기 보다는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기초를 세워 목회와 선교에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이렇듯 다문화 공동체를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노력이 바로 다문화 목회와 선교인 것이다.

교회는 지금의 시대적 변화를 지켜보며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 안에서 인정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섬김과 사랑으로 북음을 전해야 한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힘을 얻으며 살아 갈 수 있도록 교회는 다문화 목회와 선교에 사명을 가지고 우리 사회문화의 개혁자가 되어야 하며 북음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Players Tour
12~14살, 18홀, 1~2명 모집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ITC)
- P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설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긴 인내의 시간, 응답은 순간

이 시대 우리에게 큰 유혹이 있다. 그것은 조급함이다. 라면도 이미 성공적인 패스트 푸드인데 그 조리 시간마저 아까워 컵라면을 만들었다. 사진을 찍되 필름 한 통을 다 쓰기까지 기다렸다가 현상소에 맡기고 또다시 기다려 현상된 사진을 받아보던 기쁨을 잃어버렸다. 정성스레 편지를 쓰고 우표를 붙여서 보내고 상대방이 읽어줄 날을 기다리는 설레임, 기다림 끝에 답장을 받아 보는 즐거움을 상실했다.

사랑한다 말도 미안하다 말도... 심지어는 떠난다는 말도 카톡으로 보내고 바로 돌아오지 않는 답장에 화를 내곤한다. 성숙을 이루었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누가 더 어릴 때 공부를 마치고 어떤 고급차를 얼마나 젊은 나이에 타는가를 따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빠르고 건강한 성장이란 없다. 하나님의 법칙은 서서히(Little by Little)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가나안의 이방 민족을 한 번에 몰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정기정 목사
샘물교회

이스라엘이 다스리지 못하는 땅은 어찌파 들짐승들이나 가득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하신다. 분에 넘치는 축복이라는 것이다.

인생의 3대 불행은 이야기할 때 '조기성공'이 들어간다(조기성공, 중년상처, 노년무전). 사람들이 그 토록 열망하는 '이른 성공'이 왜 불행일까? 축복은 결코 성품의 그릇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기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에 준하게 성품을 성장시키지 못했을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한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설 수가 힘들어 '100명 중 1명 정도만 준경을 극복한다'는 명언이 생겼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만 관심을 둘 때가 많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성장과 주님과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계신다. 후자가 일어나면 언제든지 전자의 축복은 우리에게 머물 수 있고 의미가 있다.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축복(부흥)은 곧 심각한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많은 교회가 연말 연초에 특별기도를 심는다. 성장하는 시간인 것이다. 하루를 심고 다음날 썩이 나기를 기대하지 마라. 오늘 뿌렸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라. 자신을 이기고 하루 전보다 그릇을 키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작정한 기간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드리라. 교회에서 정한 기간동안에 영성의 그릇, 인내의 그릇을 확장시키라. 때론 지루해 보이는 인내의 기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순간 결실의 순간이 다가온다. 기도가 서서히 쌓인다고 해서 응답도 서서히 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롭다.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세크라멘토	916.363.2378	Smile Home Shopping
하와이	808.947.8086	Herb Land
달라스	972.620.2900	Royal Health Department
시애틀	206.229.5466	Health Village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이민자 재충전시키는 영혼의 '물 댄 동산'

얼바인온누리교회(담당목사 권혁빈·17200 Jamboree Rd, Irvine)는 주일학교 학생 포함 2천 2백여 명의 성도가 행복한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 영혼의 '물 댄 동산'이다.

2003년 탄생한 이 교회는 예배공동체, 성령공동체, 선교공동체라는 꾀대를 향해 12년을 부지런히 달려오면서 남부 오렌지카운티의 대표적인 한인 교회 중 하나로 성장, 이민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곤고한 한인들에게 영적인 심과 재충전을 선사하고 있다.

권혁빈 담당목사는 "2012년 1월 이곳에 부임해 5년째로 접어든다. 이민목회를 어느 정도 파악한 만큼 10년 앞을 내다보며 사역하려 한다"며 "장기 목표가 없다는 제대로 목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이 공동체의 선장인 권혁빈 목사의 타이틀이 담당목사인 것은 이 교회가 한국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이재훈)의 해외비전교회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전교회들은 인사권은 본교회가 갖고 있지만 재정, 목회 등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담당목사들은 1년에 두 차례 한국에 모여 본교회와 소통하고 목회적 격려와 지원을 받는다.



얼바인온누리교회 권혁빈 담당목사는 "10년 앞을 내다보며 목회한다"고 말했다.

■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

얼바인온누리교회

"일부에서 이같은 시스템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목회 프로그램 등 온누리의 강점을 잘 접목시키면 이민교회의 보편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등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풀러신학대학원의 한 교수님도 이민교회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사역은 창립 10주년 때 선포한 비전인 'Acts 29 NOW'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써내려가자"는 뜻의 이 비전은 Next generation(다음세대), Outreach(선교), Wave(시대적인 영향력) 세 가지를 축으로 한다.

이 교회의 눈은 무엇보다 현재가 아닌 미래, 즉 다음세대를 향하고 있다. 자녀들이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우기 위해 3년 전 목회자와 평신도들로 구성된 차세대위원회를 만들어 오랜 리서치와 탐방, 시도,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얼마 전 교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이 그것이다.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겨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기에 학부모들을 태아에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자녀 연령별로 나누어 그룹을 지어주고 각 단계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도록 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1박2일 여행, 엄마와 아들 또는 아빠와 딸과의 만남 등을 통해 세대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한 예다.

온누리의 DNA라고 할 수 있는 선교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도들을 새해 첫째와 둘째 주일에 선교헌금을 작성하고 선교 프로그램에 동참함으로써 받은 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고 있다. 그동안 중남미의 선교지에 많은 관심을 쏟아온 가운데 최근에는 어려운 남미주 라티노 교회들을 섬

2천 2백여 성도들의 신앙공동체 우뚝 차세대 세우려고 교육체제 전면개편 선교외 로컬 라티노교회 섬김 사역도

기는 일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OC에서 프레즈노에 이르는 지역에서 사역하는 목회자 및 평신도 리더들을 초청해 온종일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 그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QT, 일대일 양육, 대학생 및 청년 사역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권 목사는 "한인교회들이 미국이 곧 선교지임을 인식하고 함께 협력해 이땅에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비도 많이 들고 신분문제 때문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해외선교에만 치중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다양한 나라 출신의 이민자들을 선교 대상으로 삼는 식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그

의 지론이다. "저희 교회 가까이 있는 UC어 바인만 해도 매년 수천 명의 신입생들이 선교지에서 오고 있습니다. 중국, 아랍국가 등 현지에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나라들이지요. 게다가 학생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해 온 교내 선교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려고 합니다"

시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들과 성도를 만들기 위한 비전도 갈수록 구체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변의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을 돕고 창조과학 탐사여행 등을 진행했지만 이민교회 목회자들을 섬기기 위한 컨퍼런스도 기획 중이다. 참석자들에게 온누리 시스템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주류 사회의 좋은 목사와 신학자들의 강의를 듣고 이민목회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다.

10주 과정의 기독교세계관학교를 열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성도들을 길러내는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강의, 독서, 발표, 토론 등을 통해 성경적인 시각으로 교육, 정치, 경제 등을 바라보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IS와 중동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갖기도 했다.

얼바인온누리교회는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3부예배를 최근 완전히 바꾸었다. 1년

간의 연구와 준비 거친 끝에 내린 결정이다.

"시대와 문화가 달라졌으니 새로운 형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초의 생각이었어요. 초신자들과 젊은이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런데 고민하면 할수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결론이 명확해졌지요. 결국,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므로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은 넣고 아닌 것은 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며 그분의 죽음을 오실 때까지 전하기로 다짐하면서 자리에서 나와 참여하는 성찬식, 모두 일어나 함께 하는 성경봉독, 세상을 향한 크리스천의 선언적인 사도신경을 눈 뜨고 크게 낭송하는 순서, 설교 후 15-20분 동안 조명과 영상으로 간증, 성도간의 교제 등이 남았다.

한 사람도 관객으로 남지 않고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권 목사는 "한 시간 반 동안 많이 일어났다 왔었다 해야 하는 불편한 예배인데도 반응이 매우 좋다"면서 "철저히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다. 본질, 참여, 자유 세 가지 컨셉으로 드러지기에 딱과 포도주도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 한해 자유롭게 받고 설교 후 기도시간에 일어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강단 앞에 나오는 것도 각자 원하는 대로 한다. 통성기도를 큰 목소리로 하거나 조용히 하는 것 역시 개인의 선택이다"라고 했다.

이 교회는 연례 여성 컨퍼런스인 '마리아행진'을 개최하고 목요 여성예배도 갖고 있다.

한편, 권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원(M.Div.)과 버밍햄대학교(M.A.)를 거쳐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종교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헛블트리니티신학대학교에서 7년간 교수생활을 했다. 영성과 지성, 실천적 신앙을 갖춘 목회자라는 평을 받고 있는 그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나침반 삼아 이민목회의 거친 바다를 힘차게 항해하고 있다.

* 문의: (949)261-9100

김장섭 전문위원



선교 DNA를 가지고 있는 얼바인온누리교회 교인들이 멕시코 테카테에서 선교를 마친 후 한 자리에 모였다.

2016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교육(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11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유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범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ster@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선: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길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33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

HQ구연산은 도매가 이하로 고객 직판을 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점이나 마켓에서는 구입하실 수 없으므로 타사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구연산을 드실 때 신맛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저희 **미네랄 건강소금**을 함께 타서 드시게 되면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 건강에도 좋고 먹기에도 편리합니다.

HQ구연산의 효과에 대한 명성은 3백만병 판매 대박 히트상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첫 출시보다 두 배나 더 되는 양으로 고객님들을 모시다보니 더 이상의 보너스를 드리기에 많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낼 만큼 고객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와 실험 그리고 임상을 거쳐 **100% 천연 물질로 각종 암과 난치병, 그리고 아토피와 더불어 면역 결핍**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병들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인 **미라팜-22**가 출시되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성의를 다해 준비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프로모션 A 알파3병 + 오리지널7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

프로모션 B 오리지널10병 + 미네랄 화색 소금2봉지(2LB) = \$460 **\$100** No Tax

프로모션 C 알파6병 + 오리지널2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



한 병은 2-3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핀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훈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알칼리성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뿐해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장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아.
- ★ 비염,코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갖지 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옴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염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경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만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인과도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목을 먹는 꼴이 생길까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약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 이부경박사 현, 건강과학연구원장, 청주교육대학 대우 교수, [주요 저서]: (노벨상감의 건강박사)(당뇨병 치료법)의 다수. [상훈]: 녹조근정훈장, 철탑산업훈장, 녹조근정표장 등 수여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헬스 / HQ산삼 / HQ 바이오텍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세리토스 직영점

자녀들의 건강한 미래... 올바른 교육통해 훈련돼야

- LA제일몬테소리스쿨, LA크리스천 대안학교 -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하나님을 모르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ISIS)은 세계 곳곳에서 자신들의 신인 알라를 외치며 온갖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 마약과 인터넷 게임중독 및 음란물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 6월에 있었던 미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은 자녀를 둔 부모들을 망연자실, 아연실색케 했다.

동성애자 선생들은 커밍아웃하며 인권 존중이라는 미명하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교실내에서 동성애를 다루고 있다. 학부모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이제는 일상사처럼 비밀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미 공교육에 자녀를 맡긴 부모들은 노심초사, 좌불안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청교도 정신 바탕위에 세워진 미국이 인권과 평등이라는 잣대로 그 기초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본주의가 사람을 중심에 둔 인본주의에 의해 알게 모르게 빗장이 풀려가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사회 악은 만연해 질 수밖에 없고, 그로인해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세대는 바로 우리 자녀 세대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혼탁한 사회 현실 속에서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 아이들이 성경적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과 예배로 교육하는 학교가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 다행히도 그 대안책이 될 수 있는 크리스천 학교가 LA한인타운에 있다. LA한인타운에서는 보기 드물게 초대형 규모를 자랑하는 LA제일몬테소리스쿨과 LA크리스천 대안학교가 바로 그런 학교다.

LA제일몬테소리스쿨

지난 2015년 8월, 오랜 기간의 리모델링을 끝낸 쾌적한 환경의 LA제일몬테소리스쿨이 오픈했다.

이곳은 한국과 미국에서 오랫동안 어린이학교를 운영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에스더 최 원장이 베테랑 교사들과 함께 몬테소리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이 학교는 넓은 공간에 다양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프리스쿨은 2-6살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건물은 총 3층에 걸쳐 다양한 시설을 완비하고 있다. 프리스쿨과 킨더가든이 있는 1층은 연령별 클래스마다 넓은 공간의 교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클래스별로 교육에 필요한



LA제일몬테소리스쿨과 LA크리스천 대안학교 전경.

교구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몬테소리 교육에 사용하는 교구들과 무직, 아트 특별활동을 위한 별도의 교실도 마련되어 있다.



에스더 최 원장.

또한 뒤뜰에는 안전을 위해 특수 설치된 바닥위에 각종 놀이 기구들이 있어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게 했다. 2층에는 크리스천 대안학교 교실이 있고, 3층에는 넓은 체육관이 있어 크리스천스쿨 학생들이 각종 스포츠를 매일 신나게 즐기고 있다.

LA크리스천 대안학교

LA크리스천 대안학교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다음 세대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울 수 있는 해결책을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 지난해 설립되었다.

이 크리스천 대안학교는 K-1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40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보수적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Accelerated Christian Education (A.C.E.)의 교육방침과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A.C.E.는 미교육국에서 인가된 시스템으로 초중고교 졸업과 대학진학도 인가받은 정규교육시스템이다.(www.aceministries.com). A.C.E.는 학문과 신앙을 동시에 개발시킬 수 있도록 성경적 안목으로 모든 교과서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Home School이나 Church Schooling에 가장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제도다.

둘째, Level Test를 거쳐 개별적 수업이 진행된다.

지식과 이해와 지혜의 3가지로 배움의 과정을 통과하도록 구성되

어 있다. 교과목은 수학, 영어, 사회학, 과학, 단어, 성경읽기, 창의적인 글쓰기와 문학, 아트, 음악, 컴퓨터 등이다.

셋째, Supervisor 와 Monitoring 교사가 수업을 도와주고 학생들은 A.C.E. 교과서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진도를 나가는 수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학업이 되도록 모든 필요한 자료들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이 학교의 최 원장은 이 학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ACE성경적 기반 교육 과정을 통해 각 개인의 특성에 맞게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탁월한 교육을 지향하며 성경적 원리의 중요성과 권위를 존중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주님을 위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도록 교육하는데 있습니다"라며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의 부모가 되어 자라나는 아이들이 성경적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이 학교는 나성제일교회(담임 김문수 목사)내에 있다.

이영인 기자

* 문의: 213-380-6236
* 위치: 213 S.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 웹사이트: www.LAFirstMontessori.com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며 함께한 후 한자리에 모여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고 있다.

CGMA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 목사고시 공고

응시 자격 : 본 교단에서 인정할 정규 신학대학교의 MDVI 과정을 이수한 자

목사고시 일정 안내

1. 서류접수 마감 : 2016년 1월 25일 까지 (우편 소인)
2. 제출 서류 : 1) 이력서 2) 신앙고백서 3) 자기 소개서 4) 졸업증명서 5) 성적증명서 6) 고시료 \$400 Check (Pay to: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3. 고시과목 : 1) 논문 : 이민 목회의 비전 (30페이지 이내) *1월 25일까지 이메일이든 메일로 접수
2) 주해 : 마태복음 5장 3절~10절 산상보훈 *1월 25일까지 이메일이든 메일로 접수
3) 설교 : 본인이 본문과 제목 선택하여 설교문 작성하여 메일 필기시험 과목 : 구약, 신약, 교회사, 신조, 요리문답, 일반상식, 면접
4. 고시 사전 교육 일자 : 2016년 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5. 고시일자 : 2016년 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6. 고시장소 :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강의실
7. 서류 및 논문, 주해, 설교 접수처 : 681 S. Bonnie Brae ST, #103, Los Angeles, CA 90057
이메일 접수처 : hananimsarang@hanmail.net
hananimsarangkij@gmail.com
8. 문의 전화 : Tel (213)999-6884, (213)272-6031
9. 고시 합격자들은 2016년 3월 7일 월요일 서부지역회와 2016년 3월 14일 월요일 남부지역회에서 안수를 합니다.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 General Assembly of Christian Gospel Mission Alliance (CGMA)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Simitri with Biomass *Optional : Fax & Finisher

Green M. Wild IMAGE SYSTEMS TEL : 213 705 7778
www.GreenMWild.com . GreenMWild@Gmail.com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 C554e Colour B&W 55/55 ppm
- C454e Colour B&W 45/45 ppm
- C364e Colour B&W 36/36 ppm
- C284e Colour B&W 28/28 ppm
- C224e Colour B&W 22/22 ppm
- Dual Scan ADF 160opm Duplex
- Dual Scan ADF 80opm Simplex
- Emperor Drive!
- USB Print
- Colour Internet Fax
- Mobile Support

●이슬람 바로 알기

이슬람은 무엇을 믿는가?

이슬람은 기독교 이후 탄생한 종교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슬람의 신앙고백은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가 알라의 사도이다”라는 것이다. 비(非)이슬람 국가에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은, 이슬람 교리의 단순함과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였다. 이슬람에는 모든 무슬림들이 믿어야 하는 6가지 기본 교리가 있다.

이슬람의 6섯가지 기본 믿음

1. 알라에 대한 믿음

이슬람에서는 알라(Allah)를 믿는다. 알라는 본래 무함마드가 속한 꾸라이쉬(Quraish) 부족이 섬기던 신(神)의 이름이었다. 무함마드의 아버지 이름이 압둘라(Allah)라는 것이 그 증거이다. 당시 중동 일대 대부분의 종족들에게는 자식을 낳으면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포함시켜서 그 이름을 짓는 풍습이 있었다.

압둘라(Allah)는 아랍어로 종 혹은 노예라는 뜻의 압드(Abd)라는 단어와 알라(Allah)라는 종족신의 이름의 합성어다. 즉 알라의 종 혹은 알라를 섬기는 자라는 의미다. 무함마드의 조카 이름은 우바이두일라(Ubaidu'llah)인데, 이는 ‘알라의 작은 종’이라는 뜻이다.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은 무함마드가 태어나기 오래 전부터 ‘알라의 집’(Baitu'llah)이라고 불렸다. 알라는 무함마드가 속한 꾸라이쉬 부족의 신 가운데 가장 높은 신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신은 3명의 딸을 두었다고 한다. ‘알라’에 대한 개념은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차용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성경의 하나님과 꾸란의 알라 사이에 공통된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꾸란의 알라는 삼위 일체의 하나님을 거부하고(꾸란 41: 6), 오직 한 하나님, 즉 유일한 알라만 주장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정한다(꾸란 112: 26). 따라서 꾸란의 알라는 성경의 하나님과 다르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시될 수 있으나, 성경의 하나님은 꾸란의 알라와 동일시될 수 없다. 꾸란 자체가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신(三神)으로 왜곡하여 부정하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연속성에서 있다(꾸란 5:116).

2. 천사들에 대한 믿음

이슬람에서 천사는 알라가 창조한 영적 존재들이다. 무슬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천사들의 실재는 빛의 형태로 구성된 영혼이며, 남성이나 여성으로 묘사되지 않고 먹거나 마시지도 않는다. 그들은 알라의 의지와 권능으로 창조되었다. 모든 천사들을 관장하며 무함마드와 선지자들에게 알라의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를 지브릴(Jibril)이라고 하며, 지옥을 지키는 천사장(꾸란 66:6)은 말리크(Malik)이다. 심판의 날에 심판을 알리는 천사로 이스라필(Israfil)이 있으며, 아즈라일(Azrail)은 죽음을 담당하는 천사장(꾸란 32:11)이다. 그 외에 사람들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천사(꾸란 82:11-12)와, 메카의 카바 신전을 돌면서 알라를 찬미하는 천사가 있다. 이슬람에서 천사와 인간 사이 영계의 실재 중 하나는 ‘진(jinn)’이다. ‘진’은 원래 무함마드의 이슬람이 발생하기 전부터 아랍 지역의 섬족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그 지역의 악령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것이 무함마드에 의하여 이슬람의 정통 교리로 수입되었다. 꾸란에 의하면 알라가 천사는 빛으로, 사람은 흙으로, 진은 불로 창조하였다고 한다(꾸란 55:15; 38:76; 15:27). 또한 꾸란은 그 당시 아라비아 사람들이 알라를 진과 동등한 수준으로 경배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꾸란 6:100). 그러므로 진이 메카의 카바 신전에서 알라와 함께 하나의 신으로 존재하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경전에 대한 믿음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인류에게 시대마다 경전과 선지자를 주어서 이끌게 하였다고 본다. 꾸란은 특별히 네 가지 경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토라(Kitab Tawrah)는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이 땅에 주어진 경전이다. 모세 이전 인간들의 왜곡되고 타락한 신앙을 정정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모세에게 주어진 성경의 원본은 불타고, 기억을 더듬어 여러 차례 다시 기록되었다. 결국 원본은 사라질 정도로 변질·왜곡되었다. 자브르(Kitab Zabur)는 다윗을 통하여 계시된 경전인데, 왜곡된 구약의 내용을 정정하는 가르침과 기도들이 계시되었다. 알라



유해석 선교사
FIM국제선교회 대표

는 다윗의 제자들에게 ‘모세에게 계시한 구약에 있는 가르침과 규칙들을 따르도록 하였다. 인질(Kitab Injil)은 알라가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 계시한 복음서이다. 그동안 왜곡된 구약을 정정하고 신앙의 지침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알라가 지브릴(Jibril, 가브리엘의 아랍어)을 통하여 선지자 예수에게 계시한 인질은, 신앙과 교훈과 경고의 복음서다. 그러나 예수가 남긴 원문은 그가 떠난 후에 불타고, 계시된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대체되었다. 알라가 2천 년 전 예수에게 주었던 복음서를 더 이상 순수한 계시라고 믿을 수 없다. 위의 3권의 경전들이 변질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알라가 마지막 경전으로 무함마드를 통하여 꾸란(Quran)을 주었다는 것이다. 꾸란은 가장 새로운 형태이자 이전에 계시된 성경을 포함한 가장 완벽한 경전으로서, 심판의 날까지 그 기록과 전승이 보존된다. 꾸란 이전의 경전들은 특정 민족이나 시대를 위하여 계시됐지만, 꾸란은 인류를 위하여 알라가 준 마지막 계시인 것이다.

4. 선지자에 대한 믿음

선지자와 사도는 인간들 중 선택된 사람들이며, 완벽한 인간성을 보이고 있다. 선지자와 사도의 임무는 사람들에게 알라의 말씀을 전하고 유일신 알라를 섬기라고 인도하며 사람들 사이에 윤리와 미덕을 가르치는 것인데, 특별한 사명을 받은 6명의 선지자들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예수, 무함마드다. 이들은 모두 아담의 자손들이다. 또한 그 중에는 여성도 있는데, 예언자의 언행록에 근거하면 예수의 모친 마리아, 모세의 모친, 파라오의 딸 아시아, 무함마드의 아내 카디자와 그의 딸인 파티마가 여성 예언자이다. 무함마드는 기적을 일으켰던 일이 전혀 없다(꾸란 6:37). 이슬람에서는 무함

마드를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꾸란을 살펴 보면 그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무함마드는 평범한 인간이고 죄인이었다(꾸란 47:19; 48:2). 알라는 무함마드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했고, 그도 용서를 구하였다. 이슬람에서 무함마드는 다만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최후의 예언자다(꾸란 33:40).

그런데 꾸란의 내용과는 다르게, 실제로 이슬람에서 무함마드의 위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한다. 이슬람은 꾸란 외에 하디스(Hadith)를 따른다. 하디스는 무함마드의 언행록으로서, 그의 생전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것이다. 하디스는 순나(Sunnah, 관행)라고도 불리는데, 무슬림들은 알라가 무함마드의 언어와 행동을 모델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무함마드는 약 1,400년에 죽었지만, 그의 언행과 말은 여전히 16억 무슬림들에게 엄격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 꾸란은 이를 지지하고 있다(꾸란 33:21).

5.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

이슬람에 의하면, 죽으면 부활이 있기까지 무덤의 세계 즉 ‘바르자크(Barzakh)’로 들어간다. 바르자크란 현세의 삶 이후 부활하기 전까지의 상태를 말한다. 이슬람의 천국(Jannah)이란, 알라를 믿었던 신앙인을 위하여 준비된 곳이다. 천국에는 100단계가 있다. 알라에 대한 믿음과 복종의 정도에 따라 신앙인이 사는 곳이 다르다. 반면 이슬람을 안 믿는 자들은 불지옥으로 안내될 것이다. 알라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가공할 만한 징벌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다. 최후의 심판 때 알라는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한다. 심판은 꾸란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꾸란 전체의 14%나 되는 구절 속에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기록들이 있다. 최후의 심판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으며, 선지자들이나 예수조차도 종속된다. 오로지 무함마드만이 이미 낙원에 있기 때문에 최후 심판에서 지 아니한다.

이슬람의 낙원은 황금, 그리고 커다란 눈을 가진 아리따고 순결한 여성으로 가득 차 있다. 청순한 아내를 얻어 가정을 이루고 성생활을 한다.

그러나 자녀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 이것은 그 낙원이 쾌락의

극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슬람에서의 천국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은 관능적·세속적인 그림의 한 장면인 것이다. 천국 또는 낙원은 기독교와 이슬람에 있어서 둘 다 존재하나, 그 개념은 상당히 다르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로서 천국을 바라본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유사하게 변화될 장소로 본다. 여성과 남성이 구별되지 않으며, 배고픔과 목마름도 없을 것이며, 우리의 목적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묘사되어 있다.

6. 운명에 대한 믿음

운명론이란 알라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인간의 상황 하나하나, 언행 하나하나, 생명의 기간과 운명을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꾸란 29:62, 6:59, 22:70).

또한, 알라는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에 운명과 숙명을 결정해 두었다(꾸란 54:49, 57:22). 심지어 알라는 사람을 방향하게도 한다.

꾸란에는 알라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꾸란 16:93; 13:27; 25:9). 이슬람에서 심판의 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운명론이다. 꾸란에서 인간의 운명은 모두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알라가 결정하고 인간이 수락하는 것이다. 이슬람에서 이슬람력 8번째 달 15일은 알라에 의하여 그 해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숙명론의 개념을 보면 왜 무슬림들이 항상 ‘인샬라’(Inshallah, 모든 것이 알라의 뜻이며)라고 말하는지 알 수 있다. 기독교의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적 행위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한 찬양을 강조한다. 그것은 인간의 역사적 행위를 자유롭게 허용하면서 신비롭게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분의 오묘한 섭리와 주권에 대한 찬양을 증언한다.

◆유해석 선교사는 GMS 파송선교사로 오옌선교회와 협력해 이집트에서 사역했으며, 현재 FIM 국제선교회 대표로 있다. 저서로는 ‘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생명의말씀사) 등 다수가 있다.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복사기 무료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까칠한 벽수씨, 목사에게 묻다

이규현 | 두란노 | 236쪽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소중한 질문들. 나는 오늘 교회를 고민한다. 평신도 기자와 목회자가 벌이는 치열한 담론. 교회에 상처받았다면, 교회에서 치유의 길을 찾는다. 이 책은 나벽수라는 가상의 기자와 대형교회 목회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목회자로서 '과연 제대로 목회하고 있는가' 하는 고민 속에서 지금까지 치열하게 교회를 섬겨 온 이야기를 대화를 통해 풀어냈다.



마음 살리기

윤종현 | 규장 | 22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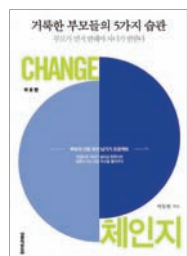
겉은 멀쩡한 척 하지만 내 속은 지옥 같다. 내 마음, 과연 무엇이 문제이며 해결 방법은 없는가? 상처에 뿌리 내린 육체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바꾸라. 반복되는 문제,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인한 고통, 마음의 문제를 깨닫고 치유를 시도했지만 실패하여 낙심한 사람,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세우는 방법을 알고 싶은 사람 등에게 꼭 권하고 싶은 국제생명나무사역의 윤종현 목사의 저서.



거룩한 부모들의 5가지 습관

이동현 | 생명의말씀사 | 224쪽

부모가 먼저 변해야 자녀가 변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물질과 명예가 편안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지만 믿음의 부모라면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내는 유일한 힘은 바로 '복음'임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경건, 사명, 성품, 가치, 일관성. 이 책에서 제시된 다섯가지 거룩한 습관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하나님을 품은 사람, 예언자

이동규 | 넥서스CROSS | 196쪽

예언이신 하나님을 품으면 예언자가 될 수밖에 없다. <예언자>는 구약 성경 속 문서 예언자 16명의 이야기를 모두 모은 책이다. 예언자가 살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이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백성에게 그분의 뜻을 전하셨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REVIEW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나의 끝이 예수 역사의 출발점이다”

절망으로 목놓아 우는 이 시대 크리스천들을 위한 희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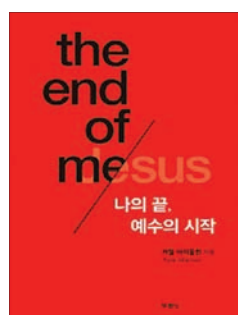
출구를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목놓아 울며 좌절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오히려 희망이다. 나의 끝이 예수 역사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도처에 왜냐고 묻고 싶은 일들이 수도룩하다. 고뇌하는 개인을 넘어서, 교회는 교회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만큼 망가졌다는 절망감이 뒤얽혀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왜 하필 우리 교회에? 왜 하필 우리나라에?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제 다 끝났어...'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무거운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이 시대 크리스천들을 위한 책이

출간되었다.

<팬인가, 제자인가>를 통해 예수님의 팬인 것으로 만족하며 살던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깨우며 큰 반향을 일으켰던 카일 아이들먼의 신작,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 책은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삶의 가장 깊은 밑바닥, 이른바 '나의 끝'에 대해 다룬다. 마주하기도 인정하기도 힘들지만, 누구나 자신의 끝에 이르는 순간에 맞닥뜨린다. 카일 아이들먼은 더 이상 갈 곳 없는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 예수님의 실재를 만나는 현상이 된다면서, 내가 죽고 끝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생명의 일을 시작한다고 말한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카일 아이들먼
두란노 | 248쪽

이는 듣기 좋으라고 하는 피상적인 위로나 막연한 긍정의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이 반드시 겪게 되는 과정

이다. 내가 죽고 끝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는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법에 눈감는 한 인생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다.

이 책은 세상의 방향과 거꾸로 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우리의 이성도, 직관도, 문화도 뒤엎는 예수님의 방식을 다시금 기억하도록, 이 땅에 젖어 사는 우리를 흔들며 깨운다. 우리는 이제 그럴듯한 권면 대신 우리 영을 진정으로 살리는 말을 들어야 한다. 카일 아이들먼은 그러니 이제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도록 매일같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신의 끝으로 가자고 우리에게 손을 내민다.

고통스럽더라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이 책의 메시지들을 따라가 보자. 그곳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충만하고도 복되며 온전한 삶을 살아보는 것이 절망으로 목놓아 우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는가.

카일 아이들먼(Kyle Idleman)은 미국 켄터키 주 루이빌에 있는 사우스이스트크리스천교회의 교육목사다. 오자크크리스천 칼리지를 졸업했고, 사랑하는 아내와 네 명의 자녀가 있다. 젊은 목회자답게 유쾌하고 활발하며, 예수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이 크다. 강연을 통해 전 세계 크리스천들을 만나고 있으며, 영상 교재 제작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신앙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이영인 기자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에 에세이를 연재하며 교회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영혼의 저널리스트**로 주목 받고 있는 소강석목사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신앙, 역사를 향한 뜨거운 외침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꽃씨 심는 남자

소강석 에세이집

“그는 거친 황야를 달려가는 들소처럼 가슴을 뜨겁게 하는 아성과 소망이 있다.”

- 이어령 교수 -

“목사, 시인, 애국자 등 그가 지닌 세 얼굴이 때로는 교차하고 때로는 번갈아 드러나면서 글 읽는 맛과 호소력을 더해준다.”

- 이선민 조선일보 기자 -

336면 / 14,000원

샘터

소강석 기념식 낭송시 모음집



251면 / 10,000원

쿰란출판사

낭송시 모음집

한국교회 최초 기념 시집! 목회자들에게 기념예배 참고와 교회 대표기도를 하는 중직자들에게는 기도문 작성에 큰 도움이 될 영성과 감성의 시적 언어! 예배 인도자들이 꼭 한 번 읽어야 할 시집!

소강석 지음

전국 기독교 및 일반 서점 절찬리 판매!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할리슈팅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주님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참가하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 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신(심내외, 장외), 제작, 연속물인쇄 전문
junimedia.com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1. 전도용품 세팅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2. 전도용 실교서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실교서디앨범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합니다!**
5. 완성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전도용품 1,000set(\$180) 고급양공 실교서 1set에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전도엽서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을 구비하고 있으니 필요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더욱 다양한 상품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툰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Special Price

PRO-Z USA Inc.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노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인 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써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골든씰

Golden Seal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 폐렴, 신종플루,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격음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2015년 초음파 리프팅 V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기념 세일

- *초음파 리프팅 V라인 4회 \$999, 2주 초소피드 다이어트 Free
-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2주 초소피드 다이어트 Free

치아미백 3달분 \$60

배 빠는 속편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Korean pastors and community members joined California state lawmakers in a prayer reception on January 11. (Photo courtesy Office of Assemblywoman Young Kim)

Korean Pastors and Community Leaders Join State Officials in Prayer

BY JUNHYEONG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California lawmakers and Korean pastors and community leaders came together for a prayer reception at the state Capitol on January 11, soon before the state legislature voted on a resolution to recognize January 13 as "Korean American Day."

Pastors of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Orange County were present at the prayer reception, along with Assemblywoman Young Kim (R-Fullerton), Assemblyman Scott Wilk (R-Santa Clarita), and 14 other members of the State Assembly and Senate. Kim had also invited Korean pastors to

the state Capitol in the beginning of last year, soon after she had become elected into office, to pray together along with other colleagues in California's legislature.

Kim and Wilk introduced the resolution (ACR110) to recognize January 13, 2016 as Korean American Day to the state legislature on January 4. And on January 11, soon after the prayer reception in the morning, the resolution passed unanimously on the Assembly Floor.

"As a Korean American, I am proud of our heritage and the strong values of family, faith, and hard work that have been handed to us by previous generations," said Kim. "I'm also humbled to represent

such a diverse district that includes a vibrant Korean American community," she continued. "I'm proud to present a resolution for the second year in a row honoring Korean American Day and recognizing the contributions of the community."

Wilk added that he is "honored to present a resolution recognizing Korean American Day," and that "it's important we highlight and celebrate the significant role Korean Americans play in our everyday lives."

This year marks the 113th year since Koreans first immigrated to the U.S. The first group of immigrants arrived on January 13, 1903 in Honolulu, Hawaii.

First Korean American Health Conference to Take Place in L.A.

BY RACHAEL LEE

A health conference specifically catered towards the needs of Korean Americans will be taking place for the first time in Los Angeles.

The "First Annual Korean American Health Conference 2016," which will be hosted by the Korean American Graduate Medical Association (KAGMA), came about as a coalition of 13 organizations — including KHEIR (Korean American Health Education Information and Research) Clinic, the Korean American Coalition (KAC), and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KFAM), among others — saw the need for deeper research on the health concerns and needs of Korean Americans.

While other ethnic minority groups have had medical research done regarding the groups' specific needs, not much specific study has been carried out for the Korean American population, according to Dr. David Kim, the assistant director of the residency program at Cedars-Sinai and who is heading the upcoming conference. A lack of research on the health needs of Korean Americans hinders them from receiving the care, resources, and funding that they may otherwise be qualified for.

"Korean Americans face greater language barriers in trying to access health care, and are more un-

insured than other Asian groups," Kim added, leading to disparities in health conditions. He said he hopes the conference — themed, "Improving Health Outcomes in Korean Americans through Education, Collaboration, and Empowerment" — could provide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with more information about health care and specific health concerns.

Organizers also said they hope the conference would serve as a platform through which these concerns can be voiced to the greater community, as political figures including Los Angeles Councilmember David Ryu, California State Treasurer John Chiang, and Deputy Consul General of South Korea Sang Min Ryu will also be present.

Main sessions of the conference will focus on health disparities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he Affordable Care Act and its impact on Korean Americans, and gastric cancer in Korean Americans. Two sessions of roundtable discussions will also discuss other concerns including cardiac disease, Alzheimer's disease, lung cancer, hepatitis, breast cancer, colon cancer, and perfectionism and mental health.

The conference is on Saturday, January 16, from 8:30 AM to 1 PM. To register and for more information, visit kagmahealthconference2016.eventbrite.com.

Human Trafficking Task Force Aims to Provide Resources for Asian Victims

BY RACHAEL LEE

A coali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serving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launched a human trafficking task force on January 13 to specifically target the needs of the Asian Pacific Islander (API) survivors.

The task force, called the Asian Pacific Islander Human Trafficking Task Force, consists of 15 member agencies, and aims to strengthen the services that can be

provided to API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through their collaboration.

Member agencies include non-profit organizations such as the Coalition to Abolish Slavery and Trafficking (CAST), Filipino Migrant Center,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KFAM), Thai Community Development Center (CDC), and Korean Churches for Community Development (KCCD), as well as government agencies and individuals, includ-

ing Los Angeles County's Mental Health Commissioner Lawrence Lue and the Los Angeles District Attorney's Office.

Together, the task force is able to provide services in 19 languages, including Korean, Mandarin, Japanese, Tagalog, Khmer, Thai, Cantonese, Bengali, and Vietnamese.

Among the members of the newly launched task force alone, 764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were served last year, 57 percent (434 individuals) of which were

API. Most of the clients were Thai (228), followed by Filipino (114), and Korean (35).

However, underreporting is particularly prevalent in the API community, said Connie Chung Joe, the executive director of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KFAM), which could be attributed to various reasons. For example, when one or both parents of a child sex trafficking victim are English speakers, the report may fail to check and record the ethnic-

ity of the victim, and the same may apply if the child is mixed race. Children who were trafficked internationally before getting specific help from the DCFS may not be reported into the records, Chung Joe added.

As such, the task force stated that another of its primary goals is to "increase knowledge and usage of culturally responsive strategies to serve API human trafficking victims," such as by addressing issues like underreporting.

Reaching the Local Community Demographic Through the Local Church

Interview with Asian American Pastors, XXVIII: Pastor Phil Kim

BY RACHAEL LEE

Printouts of articles and research on the Rowland Heights community are taped along the office walls of Pastor Phil Kim, the current lead pastor of The Home Church. Kim, who has long been an English ministry pastor at a Korean immigrant church, is now aiming to reach the local community's diverse demographic of people through the ministry.

The Home Church is currently the English ministry of Beautiful Church, a Korean immigrant church located in Rowland Heights, CA. And in February, The Home Church will officially launch as a multi-ethnic church of its own.

Since Kim returned to Beautiful Church in January of 2014 after spending two years and a half in South Korea, the EM has been on track to becoming fully independent, gradually becoming more and more financially stable, and rebranding the ministry in May of that year. And when The Home Church is officially launched in February, Latino American pastor Mitchell Perez will come on board the pastoral staff, along with a team of about a dozen congregants who had been with Perez when he had previously planted a church.

The prospects of having a multi-ethnic church, particularly with a Latino American pastor, is exciting to Kim because of what he's learned about the Rowland Heights community, he said. The majority of the city's population is Asian American (60 percent), but the next largest ethnic group is Latino American.

"We want to be a church that al-

lows anyone to feel welcome," Kim said. "Our vision is to be a church for the community." Specifically, he added, the ministry's vision is "to be a gospel-centered community, changing the city with the love of Christ, for the glory of God."

Kim, who attended Beautiful Church as a student in high school and spent the majority of his ministry career there as a youth pastor and in other positions, said that his initial idea to start exploring ministry in a multi-ethnic context didn't come about until he actually went to South Korea for a short ministry stint. During his time in Korea, Kim served as one of the pastors for the English ministry at Yoido Full Gospel Church, the largest church not only in South Korea but in the world.

After having spent the majority of his life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context with other Korean Americans, Kim had a new experience at Yoido, worshipping with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he EM at Yoido represented 35 different countries. People from Africa, Europe, Southeast Asia, the U.S., the U.K., were all worshipping together," Kim recalled. "I remember almost every Sunday, worshipping and thinking, 'Man, this is a glimpse of heaven.'"

"That's when I feel like God started giving me a heart to church plant," Kim said, and not only that, but to push himself to go outside of a "like-minded, same-culture" context, as he put it.

This triggered him to further research multi-ethnic ministry and church planting. And when Kim realized he might be returning to Beautiful Church, he furthered his research specifically on the Row-

land Heights community and forwarded some of his ideas to Reverend Seung Hee Ko, the senior pastor of Beautiful Church.

Though initially, Kim felt unsure of how Ko felt about the idea, he said that Ko actually encouraged him to pursue independence once he did return to Beautiful Church, and is now fully supportive.

"I always admired about Pastor Ko for his willingness to take risks," Kim said. "He may not understand everything we want to do. But he's willing to try something outside of his comfort zone."

The Korean and English ministries plan to share an 'inter-dependent' relationship, as Kim described it. Though he and Ko are still having talks about specifically what that would look like, Kim said he envisions the two ministries working together to minister to children and youth in the education department. He doesn't expect this next chapter to be easy, but Kim said he wants to preserve the relationship with Beautiful Church despite the potential obstacles the two ministries may face. He also expressed to Perez the desire to maintain a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ministry.

"I was telling Mitchell about this — I am so thankful and appreciative of the first generation for all that they have done," he explained.

"If you're just your own independent entity, everything is more rapid. But one thing I feel like God is putting on my heart is that we can't just say 'Forget it,' [to the Korean immigrant church]. We owe it to the previous generation for all that they've done. And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the Korean



Pastor Phil Kim is the current lead pastor of The Home Church in Rowland Heights.

church does that other churches can't."

"We want to stay connected," continued Kim. "And as problems or issues come, we want to work through those things together."

Since Kim and the ministry leaders started casting the vision for The Home Church, the ministry has been taking initiative in various ways to connect with and serve the community, such as by joining the Rowland Unified School District's Family Resource Center in giving new school supplies and backpacks in their annual 'Fresh Start' event, and giving Christmas gifts

to the elderly at a senior home and spending time with them.

As they meet with new people within the surrounding community through efforts like this, they're hoping that The Home Church could be an inviting and welcoming place for anyone that they meet who might be interested in visiting.

"This is what Christ has called all Christians to do," explained Kim. "God is calling us not to just live a life of comfort, but to work through differences, and through the gospel, to learn to come together."

성전 이전 감사 예배

2016년 교회 표어

“예수님이 계시다고 소문난 교회”

교회 비전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
예수 제자의 비전
말씀과 성령으로 비상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담임목사 오병익외 성도 일동

2016년 1월 17일 주일 오후 4시

714.801.1625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남가주벤엘교회

남가주벤엘교회

남가주벤엘교회

남가주벤엘교회

